

계약전에 교통환경·유사시설 조사...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복구 대형마트 건축심의 부실”

입점 저지대책위·전주연 시의원 의혹 제기... 불매운동도 불사

대형 유통업체 확산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중소상인들이 지자체의 건축 심의에 대해 부실의혹을 제기하고 유통업체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계획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7일 복구대형마트·SSM 입점 저지 대책위와 광주시의회 전주연 민주노동당 의원이 복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됐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게 ‘복구 매곡동 신축공사에 따른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보고서를 의뢰한 결과 조사시점, 유사시설, 교통량 등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거나 보고서가 허위작성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유사시설 조사(2009년 4월, 11월)와 교통환경조사 사전조사(2009년 11월)가 기술용역도급계약(2009년 12

월) 이전에 일부 조사가 진행됐다 교통 환경조사의 조사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 시행자인 S법인과 수립 대행기관인 S종합건설의 대표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것도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또 S법인이 유사시설 조사지점으로 밝힌 홈플러스 동광점, 이마트 상무점, 참다 쇼핑센터의 경우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에 정지처럼 고려중·고교, 기계공고 등 3개 학교가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설 사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려중학교에서 북부서 사거리 일대의 휴일 교통량 조사도 사업주가 제출한 결과와 대책위·언론사의 공동조사 결과에 있어 5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점도 보고서 허위 작성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고시(제2008-841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에 따르면 교통량 현황조사 결과 조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30% 이상 오차가 발생한 경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1, 2차 재판 과정에서는 학교 측이 제기한 학습권, 통학권이 빠져 있고 심의 보고서의 부실, 허위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심 청구가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과정을 공개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5일 롯데마트와 이마트에 복구 대형마트 우회 입점 여부에 대한 공식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본사로 발송했으며, 우회입점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테스코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한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사랑의 연탄 선물하세요”

현대백화점 광주점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생필품 등 사은품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으로 기부하는 ‘사랑의 난방유 지원 모금’ 행사를 펼치고 있다. 고객이 백화점에서부터 생필품 사은품을 받는 대신 ‘연탄 기증’을 원할 경우 복지시설에 연탄 3장을 기증하는 행사다. 또 백화점은 11월 중 복지행사를 진행, 수익금 전액을 이번 행사에 기부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생필품 등 사은품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으로 기부하는 ‘사랑의 난방유 지원 모금’ 행사를 펼치고 있다. 고객이 백화점에서부터 생필품 사은품을 받는 대신 ‘연탄 기증’을 원할 경우 복지시설에 연탄 3장을 기증하는 행사다. 또 백화점은 11월 중 복지행사를 진행, 수익금 전액을 이번 행사에 기부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제공>

주간 증시 포커스

중국 소비확대·IT주 유망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FOMC의 정책 불확실성 해소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장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최고치로 올라갔다.

특히 FOMC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우호적이다. 애초 이번 양적 완화 정책 이후 외국인의 차이실현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외국인 매수세 확대와 미국증시의 추가 반등으로 완화된 것이다.

반면 국내투자자는 지난주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를 때에도 환호하며 흥분하지 않고, 크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최근 장세가 달라 약세와 중국 소비 확대에 기반을 둔 외국인 주도의 장세였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기준 시각에 변화가 없는 한 크게 오른 데 따른 단기적인 조정을 어쩔 수 없더라도 추세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당일 외국인 매수 규모나 펀드 환매 규모에 따른 지수 변동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저금리에 마땅하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자금들이 손꼽아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지수 조정 가능성보다는 종목별 가격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이번 주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국내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담에 투자자의 이목이 쏠려 있는데, 각국이 이미 경주에서 약속했던 환율 조율과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각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건인데, 우선 이번 환율 조정에서 유턴을 맞았던 일본의 반응은 이 점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서 합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다소 경계감을 표시하고는 있지만, 이미 IMF를 확대하는 당근을 쥔 후라 어떤 식으로든 성의 표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1월 5일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8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IT주식을 샀다.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는 인식과 그동안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라는 판단은 외국인들이 IT주식을 더 매수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박종모 <신협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자동차보험 사고율 지역별 차이 크다

인천 최고...전남은 1천대당 사망자수 최다

자동차보험 사고율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자동차보험 사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8.0%)으로 가장 낮은 제주(4.4%)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자동차보험 사고율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체 자동차 중에서 교통사고를 낸 자동차의 비율을 말한다.

인천에 이어 서울(7.0%), 대전(6.8%) 등의 사고율이 높았으며 경북(4.7%), 경

남(4.8%) 등은 낮았다. 대도시의 사고율은 6.8%로 농촌 및 중소도시(5.7%)보다 높았다.

자동차 1000대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0.463명)이었으며 1000대당 부상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125.4명)이었다.

대도시는 교통량이 많아 사고 빈도는 높으나 평균 주행속도가 낮아 소형 사고가 많은 반면, 농촌 지역은 과속운전에 의한 대형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겨진다.

/연협뉴스

光銀 ‘내집 마련찬스론’ 판매

광주·전남 지역 미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아파트 구입 고객을 위해 특별 대출인 ‘KJB내집 마련찬스론’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광주·전남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 금융지원을 위해 총 1000억원 한도까지 판매된다. 특히 이 상품은 기존의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으며 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전액 은행이 부담하는 등 고객의 금융비용까지 덜어준다. 또 신용등급 구간을 최소화해 1~7등급까지는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갈곳 잃은 자금 은행예금에 몰린다

저축성예금 한달새 20조 급증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려 들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10월까지만 해도 끌어내리기 바빴던 정기예금 금리를 이달 들어 속속 올리고 있어 자금 유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예금 만기의 단기와 현금이 심해진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화를 푸는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시중자금이 은행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저축성 예금 20조 가까이 급증> 7일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저축성 예금 잔액은 9월 말보다 19조1934억 원 늘었다. 저축성 예금은 지난 5월 한 달간 22조원 급증한 뒤 둔화하다가 10월에 다시 불어났다. 저축성 예금에는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식 예

금(MMDA), 고금리 월급통장과 같은 저축예금이 포함된다.

실질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임에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은행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 단기화 속 유동성 정체> 그러나 예금 만기의 단기와 국내 증시의 유동성 정체가 시중자금 흐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이 1개월이나 6개월 등 만기가 짧은 예금이나 수시 입출금식 예금(MMDA) 등에 돈을 넣고 관리하고 있다”며 “최근 1년 내내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단기 예금과 특관 예금의 만기가 올해 4분기에 집중된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연협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본 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2010 한돈 판매 인증점 선정

축

대한양돈협회

한돈 판매점이란?

국내산 돼지고기 만을 사용한다는 대한양돈협회 품질보증 제도입니다.

한돈인증점기법

공짜·해피타임 pm2시~pm5시 사이

입장고객님께 보쌈 2인분 + 고기1인분공짜 = 고기 3인분 (4인분주문 + 고기2인분공짜 = 6인분제공, 포장도가능)

11월 1일 ~ 12월 10일까지 (단, 토요일 제외)

민속촌

1989·민속촌

민속촌황술촌총장점

062)222-4815

광주 동구 호남동 73-2

골프존 GOLFZON

아프리카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OPEN

광주에 이런 스크린 골프존은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OPEN 기념 등록회원특전

락카무료이용 스크린이용권 증정 연회원 가입시 골프와 증정

- 골프존 대형룸 6실
- 좌타시설
- 단체팀 무방기능
- 연습장 12타석
- 전타석 분석 시스템
- 클럽 무료 대여
- 홀인원 이벤트
- 온라인 골프대회

예약문의 : 062)671-8900

한우심형제 방림지구대 | 두레주요

메가박스 영화관 | 롯데슈퍼센터

무등 153가 | 요정외곽

4차~입구 | 남부경찰서 | 동이중

고등학교 | 동3차

봉선동 무등 4차 복합상가 지하